출생축하금 100만원, 24개월간 육아수당 20만원씩

1월 1일부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본격 추진

산후관리 공공서비스·신혼부부 행복주택·입원아동 돌봄도

광주시가 민선 7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올해 첫 출생아부터 출생축하금 100만원과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1년 새해 첫날 출생한 아이들부터 광주출생육아수당을 지급한다. 곽현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1일 0시00분 광주문화여성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게 축하 영상메시지를 전달하고, 출생육아수당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곽 국장은 결혼부터 임신과 출산, 양육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상담,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 통합플랫폼을 소개하고 맞춤형 정책을 통해 돌봄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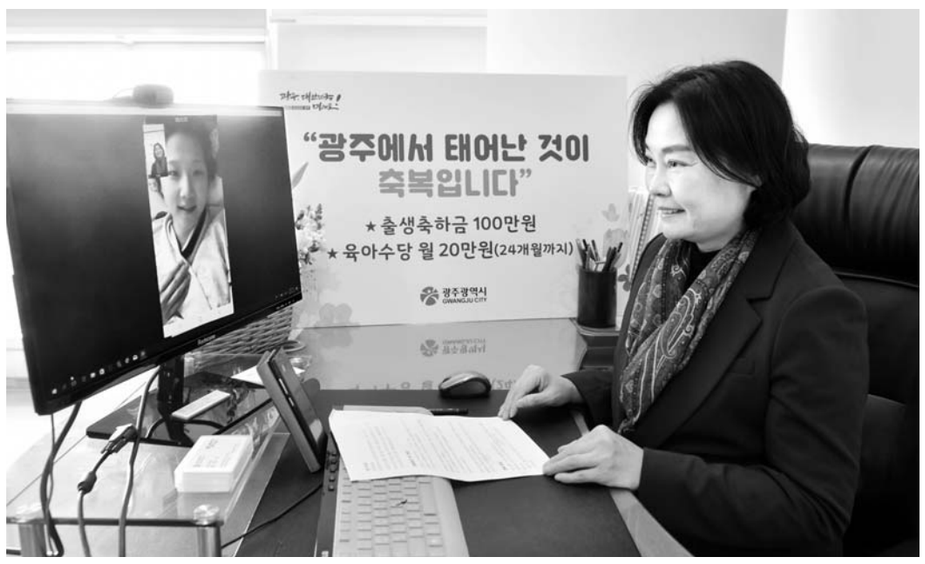
광주시는 2021년 새해부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위해 ▲촘촘한 돌봄서비스 기반 확충 ▲생활거점 돌봄 인프라 구축 ▲청년출발지원 일·생활 균형지원 등 3단계 핵심정책을 진행한다.

특히 이날 지원이 시작된 '광주출생육아수당'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의 핵심 사업으로 출생축하금 100만원,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출생육아수당 ▲부부 대상 행복 플러스 건강 지원 ▲청년 신혼부부에게 광주형 행복주택 200세대 공급 ▲출산가정 대상 수유마사지 등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프로젝트로 광역단체 최초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서비스와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난임부부시술비, 한방난임치료비 등을 지원해왔다.

또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청년의 안정된 정착을 돕고, 일·생활균형 등 가족친화정책 지원으로 청년→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5단계의 생애주기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을 본격 시행해 가고 있다.



곽현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이 지난 1일 오전 시청 사무실에서 새해 첫날 태어난 아이의 산모와 화상통화를 통해 축하 인사를 하고,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곽현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다양하고 입체적인 정책을 통해 청년이 광주로 다시 돌아오고 희망찬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추가 승진·전보인사

3급 2명·4급 1명 등 8명 승진

5급 이하는 18일까지 마무리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정안전부 전출,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결원직위에 3급 2명, 4급 1명(직무대리), 5급 2명, 6급 3명 등 8명을 추가로 승진의결하고, 3·4급 9명에 대한 추가 전보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 3급 추가 승진자는 이돈국 총무과장과 김용승 혁신소통기획관 등 2명이며, 행정 4급 승진자는 손항환 소통기획담당이다.

3급 추가 전보인사는 김일융 자치행정국장, 김애리 공무원교육원장, 김용승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 김석웅 서구 부구청장, 이정식 남구 부구청장, 이돈국 광산구 부구청장 등이며, 4급은 주재희 혁신소통기획관, 윤창옥 총무과장, 손항환 기업육성과장 직무대리 등이다.

3급 승진자인 이돈국 신임 광산부구청장은 수영대회지원단장을 맡아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특히 엄중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청사 방역시스템 및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시청사 안전을 확보해 시 전체 방역 컨트롤타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용승 혁신성장본부장은 혁신추진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시정 혁신을 총괄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정부혁신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부여받는데 기여했다. 4급 승진자인 손항환 소통기획담당은 시민권익위원회 실무를 총괄하고 바로소통 등 대시민 소통 업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화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오는 18일까지 5급 이하 전보인사를 마무리해 민선 7기 후반기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일반도로 50㎞, 생활도로 30㎞ 속도 제한

광주시 '안전속도 5030' 교통시설물 설치

일반 83개 구간 지난해 10월

생활도로 3월까지 완료 예정

광주시는 "광주경찰청과 함께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앞서 선제적으로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완료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9년 4월17일 공포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왕복 5차로 이상 시청로, 왕복 4차로 도로인 월드컵 동·서로 등 시내 도시부 도로 83개 구간(총 연장140.4㎞)에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조정했다. 30㎞/h 하향구간은 오는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 도로인 상무대로 등 30개 구간 140.6㎞에 대해서는 60㎞/h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그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1일~22일 '광주형 3대 뉴딜' 대강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

공직자·기업인·시민 대상 총 10회

유튜브·인터넷방송 온라인 생중계

광주시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총 10회에 걸쳐 '정의로운 전환, 세계 선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광주형 3대 뉴딜 대강좌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강좌는 한국판 뉴딜정책과 인공지능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형 3대 뉴딜 전략을 이해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사업 발굴 및 확산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진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전체 내용을 시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강좌는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뉴딜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과 안전의 휴먼뉴딜 등 광주형 3대 AI-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을 분야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11일 첫 번째 강좌에서는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김성환 국회의원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형 뉴딜 전략', 장병탁 서울대 교수의 '디지털뉴딜과 인공지능 신산업' 주제 강연이 펼쳐진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이순형 ㈜에스지 대표의 '광주시 에너지자립과 분산형 전원', 이유진 국무총리실 그린뉴딜 특별보좌관의 '2021년 구내 외 그린뉴딜 정책 전망과 과제', 이명주 명지대 교수의 '광주형 건축물·도시분야 탄소중립방안',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한국의 제조업과 에너지전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사회 윤순진 분과위원장의 '기후위기,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좌가 마련된다.

휴먼뉴딜 분야에서는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휴먼뉴딜의 비전과 지역 일자리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린다./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市농기센터 6월까지 50% 감면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시작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은 당초 같은 해 7월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농촌 인력난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12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센터는 총 69종 515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광산구 본소와 북부 분소 등 2곳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3875건, 9900여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양희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추가 연장 시행으로 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한 농가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